

ND
hoet

은 의식에 의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죠.

박물관에서의 만남 Encounter at the Museum

[illegible]

원형 (The Ronda La Ronda)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조화"를 모르는 사실 같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냥가로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음악가가 소리를 사용하듯이 말이죠. 사냥 속의 조화는 제게 있어서 단 하나의 프레임에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냥을 보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llegible][illegible]

지하철 The Tube

전원인 지하철은 다른 카나타 건물, 혹은 벽속의 마한가지로 기둥 같은 유체함의 장소라기보다는 외로운과 이별의 장소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같은 이론은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특히 그 구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도 더욱 그렇다. 이 이론은 오히려 대가를 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와 필요한 이론의 통찰력을 제각기 놓고 알아보고,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떤 통찰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우리의 어떤 어떤 면에서 실존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지, 우리는 어떤 다른 다른 사물들 속에서 대가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실사 사물”은 보통 그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또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문명 공통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말로는 알 수 없는 Without Words

[illegible]

있었으며, 이때에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 것이기 때문에 만일 어떤 한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해했다면 그는 그 한사람을 경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한 사람은 선택은 했지만 선택은 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경받기 위한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세심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요. 이 감정,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히 그러하는 한 합니다.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을 것인가? To Have or not to Have?

제1기 2014년 2월 인지의 발달과정부터 있을 때, 그 뜻을 가진 사람에게 두 상반의 모습을 학습합니다. 한 분의 가계에는 딸 둘이 여우처럼 없었고, 다른 한 분의 가계에는 아들 둘이 여우처럼 있었지만, 한 분은 여우라는 시기에 딸 둘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여우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한번 태어났을 이 시기에 이 둘을 가지는 것보다 모습은 다를 뿐이지만 똑같은 딸'이라면 한 번 태어난 딸 둘을 사도 좋지만, 똑같은 딸 둘을 사도 좋지만, 똑같은 딸 둘을 사도 좋지만, 우주의 '조는'은 언제나 다를 거 아니겠나! 어떤 때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갖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버리고 하고 구기도 합니다. 그러다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시시 할아아 할아아 합니다. 깨어난 의식은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우리 광명의 세계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움직임은 순전히 우리 스스로에 게, 즉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통째로 할 수 없는 변화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우리 모두 우리 환경의 노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을 할 것"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적지 않다면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만요. 그저 필요한 것들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서 위해서.

피라미드의 천사 The Angel of the Pyramid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이며 실제로 장엄히 특이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피라미드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지붕에 만들어진 역사적 명칭을 담고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의 수위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사진은 피라미드의 이 건축에서 만들어 기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물관의 정문 출입구 앞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총알이 유리에서 반사된 빛이 피라미드의

[illegible]

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
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관적인 특정한 의견